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1인가구의 특성 -지역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송 유 진
한양대학교 인구 및 고령사회연구소

Characteristics of the One-Person Households of the Elderly during Widowhood -Regional Distributi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

Song, Yoo Jean

Institute of Population and Aging Research,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challenges the general notion of one-person households of the elderly during widowhood as impoverished, isolated, and vulnerable. Recognizing a high potential vulnerability, however, this research attempts to describe the diverse composition of one-person households of the elderly. For this purpose, relying on 2% sample data from the 2000 census, it examines regional distributi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one-person households of the elderly during widowhoo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s of the elderly differ by region. Jeju island is distinct in terms of sex and age distribution, and residence area of children. In general, rates of economic activity and self-subsistence are higher in provinces than in cities. Compared to the elderly living with family, the elderly living alone show high rates of economic activity, self-subsistence, and capability of physical activity.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 are consistent with those of descriptive statistics. Those who are economically active and able to move around without assistance tend to live alone after the death of a spouse. Number of sons and living in an urban area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living alone, whereas females are more likely than males to live alone. According to the separate analysis by age, the positive effect of economic activity is greater in the oldest of the old than in other age groups. Those who possess high educational attainment tend to live alone when they are 80 and older, unlike other age group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finds that one-person households of the elderly may not always be the most vulnerable group, and are diverse in terms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Key words: one-person household of elderly, regional distributi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 078-BS0004).
접수일: 2007년 2월 9일 채택일: 2007년 2월 27일

Corresponding Author: Song, Yoo Jean Tel: 82-2-2220-2716 Fax: 82-2-2220-2717
E-mail: yjsong28@hanyang.ac.kr

I. 서론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이 자녀의 도리로 여겨졌다.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가족은 노인에게 대한 복지를 책임지는 부양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기혼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 특히 부모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사회규범으로 여겨져 왔다.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이동이 빈번해지고 핵가족 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가족 구조에 다양한 변화가 생겼음은 주지된 바 있다. 김정석(2002)은 한국사회의 가족구조 변화의 특징을 소가족화, 가족세대 단순화, 비전형적 가족형태 증가로 구분하였다. 비전형적 가족형태 증가 중 노인1인가구의 증가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인구센서스 자료를 통하여 65세 이상의 인구 중 1인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1980년 4.8%에서 1990년에는 9.5%로, 그리고 2000년에는 16.8%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김정석 2002). 이 비율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서 2005년에는 18.1%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즉 기혼자녀와 노부모가 함께 사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듯 노인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거주형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직까지도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노인들이 혼자 산다는 것,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 혼자 산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한국적 맥락에서 혼자 사는 노인은 심리적 소외와 고독감에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노인1인가구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어 복지수혜대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많은 기존 연구들은 자녀와의 동·별거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삶의 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혼자 사는 노인은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하여 정서적 만족감, 정신적 건강 등에서 낮게 평가된다고 보고하였다(안경숙 2005; 원영희 1995; 유광수·박현선 2003; 이영자·김태현 1999; 한경혜·윤순덕

2001).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포함한 노인단독가구 연구를 통하여 노인들의 전반적인 빈곤상황도 지적된 바 있다(박충선·남정림 1996; 최현수·류연규 2003).

위의 연구들은 노인1인가구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책적 제언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규모 설문조사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인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로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분리하지 않은 채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와 비교분석 함으로써, 노인1인가구의 차별적인 특성을 부각시키지 못하였다.

노인1인가구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가족가치관과 노인부양 규범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노인1인가구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취약계층이라는 동질적 특성을 지닌다는 기존의 전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부양 규범이 약화된 현실에서는 경제적, 신체적 건강 자원 등을 지닌 노인들이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 자발적으로 독립가구를 형성할 수도 있다. 앞으로 새롭게 노인층으로 진입할 인구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할 때 노인1인가구가 다양한 자원을 소유한 수요 창출 집단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노인1인가구의 특성과 거주형태 결정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논문은 2000년 인구센서스와 같은 대규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1인가구의 지역적 분포와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1인가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존 논의들이 심리적 복지감과 삶의 질 등 주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개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 같은 객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의 빈곤과 복지수요를 전제하였던 것과는 달리, 노인1인가구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기하는 연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어떠한가?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의 지역별 분포와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배우자와 사별 후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하여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닌 노인들이 혼자 살 확률이 높은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노인1인가구 중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1인가구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노인1인가구의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사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나타나는 황혼이혼의 증가를 고려하면 앞으로는 이혼하여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새롭게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연령대에서는 미혼과 이혼이 노인1인가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혼이나 미혼에 의한 노인1인가구 형성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규범에 기초하여 노인1인가구의 취약성을 지적하던 기존의 논의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배경을 고려할 때, 사별 후 형성된 노인1인가구만을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II.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노인1인가구 집단의 다양성

이 연구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노인집단, 특히 노인1인가구를 비교적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였던 사실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출발하였다. 예를 들면 노인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젊은 시절 주로 농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간주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노인들이 지닌 자원은 매우 한정되었고, 자녀들과 동거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지원을 받는 것이 사회규범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진행되

고 노부모 부양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 부족을 염려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노인1인가구는 가족지원이 부족한 복지수혜대상자로 인식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많은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한국사회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에 대한 유일한 지원의 척도는 아님이 지적되었다. 즉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대면접촉과 연락을 통하여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짐이 밝혀졌다(김두섭 2001; 김두섭 등 2001; 한경혜 1996; Bian et al. 1998).

또한 노부모와 자녀의 동거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제공되었다. 가령 노부모와 자녀의 동거가 반드시 효 의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거나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일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Logan과 Bian(1999) 중국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노부모와 기혼자녀의 동거를 경제적인 여건, 주택 부족, 자녀양육 문제 등과 같은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의 필요에 의해 전략적으로 선택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이 보도된 바 있다(조선일보 2006). 또한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약화됨과 동시에 자녀로부터 받는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 역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점차 사회지원체제와 노년에 대한 개인적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듯 노부모 부양의 보편성이 약화되어 노부모와의 동거가 선택사항으로 변화하였다면, 노인의 거주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발견될 수 있다. 또한 노인1인가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제시될 수 있다. 과거 노인1인가구에 대한 시각은 모든 지원을 박탈당한 복지수혜대상자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가치관과 새롭게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인구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별성(예: 과거 노인집단에 비하여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능력을 지님)을 고려할 때, 노인1인가구 집단의 다양성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1인가구에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 역시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와 정책에서 주로 사용되던 '독거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노인1인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기존 연구와 정책에서 사용되었던 '독거노인'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됨에 반하여 '노인1인가구'라는 용어는 중립성을 띤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선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던 '노인단독가구,' 즉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포함하는 용어와도 구분된다.

2. 노인1인가구 연구의 필요성

그렇다면 왜 노인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인1인가구는 지난 20년간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노인1인가구의 수적인 증가는 물론 구성의 다양성이 진행된다면, 이는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측면에 많은 함의를 지니는 새로운 집단으로 부상할 수 있다. 가령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주택 구조 및 시설을 비롯하여 이들의 소비활동, 여가, 지역사회 활동, 가족관계 등이 대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기초적인 분석, 즉 노인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소규모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연구를 수행하거나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분리하지 않은 채 자녀와의 동·별거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보도 자료는 지역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혹은 노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1인가구의 총체적 특성에 대한 분석에 주로 의존하였다.

노인1인가구는 기존의 가족규범과 달리 자녀와 별거한다는 측면에서는 노인부부가구와 유사

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산다는 점에서 노인부부가구와는 명백히 구분된다. 특히 선행 연구들은 배우자의 유무가 노인의 고독감과 행복감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안경숙 2005; 원영희 1995; 한경혜·윤순덕 2001). 또한 노인1인가구는 다른 연령대에 나타나는 1인가구와도 차별성을 보인다. 이렇듯 다른 집단과 차별성을 지님과 동시에 새로운 수요창출 집단으로 부상할 수 있는 노인1인가구의 특성을 독립적으로 면밀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도 노인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가령 노인의 거주형태와 삶의 질(안경숙 2005; 원영희 1995; 유광수·박현선 2003; 이영자·김태현 1999; 한경혜·윤순덕 2001)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되었듯이 기존 연구들은 거주형태의 결과로 나타나는 주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소규모 설문 조사에 근거한 특성이 있다.

센서스와 같은 전국 규모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거주형태별 특성을 기술적(descriptive)으로 제시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은기수 2001). 특히 위의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가구와 가족구성 형태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가구구성이 일부 결과로 제시되었다.

대규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연구된 노인의 거주형태의 결정요인, 혹은 자녀와 동·별거하는 노인의 특성에 대한 논의 역시 상대적으로 소수에 한정된다(김정석 2005; 박현정·최혜경 2001). 이 두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한 전국 규모의 노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녀와의 동·별거를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고려함으로써 노인1인가구를 분리하지 않고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1세대가구(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포함)를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와 비교한 특성이 있다.

대규모 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부족했던 원인은 자료의 결핍에서 찾을 수 있다. 가령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의 경우도 2000년에야 비로소 노인에 관한 문항이 상당 수 추가되었다.

최근 들어 노인집단에도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등에 따라 차별적인 특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이론적 논의도 제시되었다(박경숙 2003; 은기수 2001; 조성남 2004).

이렇듯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1인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 결정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인1인가구, 특히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1인가구의 특성을 기술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기술 분석의 초점은 지역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춘다. 또한 배우자와 사별 후 노인의 거주형태에 대한 결정요인을 통계 분석(statistical analysis)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 자료 및 연구방법

연구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기 위하여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자료를 사용하였다. 일차적으로 사별 후 형성된 노인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사별 후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과 혼자 사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사별 후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지닌 노인들이 혼자 살 확률이 높은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2. 측정 변수

이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사는 노인1인가구에 제한된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1인가구 중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와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만 추출하였다.

노인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경제활동상태, 혼자 바깥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 지역(도시와 농촌), 총 출생아들 수, 생계수단, 자녀 거주 장소

를 이용하였다. 사별 후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변수를 이용하였다. 지역별 분포는 위와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여 16개 시도별로 비교하였다.

사별 후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지닌 노인들이 혼자 사는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위의 변수들 중 자녀 거주 장소를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노인의 거주형태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은 물론 경제활동상태, 건강상태, 거주 지역, 가치관과 같은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센서스 자료의 특성상 가치관 관련 변수를 제외한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족규범, 특히 아들의 부모부양에 대한 규범이 강한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출생아들의 수를 변수로 추가하였다.

기혼자녀와 노부모의 동거를 사회규범으로 규정하는 보편성이 약화됨에 따라 거주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음은 이미 논의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필요(need)와 자원가용성(availability of resources)이 거주 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되고 있다(김정석 2005). 가령 경제활동상태와 건강상태는 노인이 소유한 자원으로 고려되며 거주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 지역과 출생아들 수 역시 자원가용성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위의 변수들을 사용하여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하여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노인의 연령집단별로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65세-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특성 비교

2000년 센서스 2% 표본 자료를 통해 파악된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1인가구는 총 10,493,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총 20,808 가구로 나타났

다(Table 1).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노인1인가구와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모두에서 약 89%가 여성으로 파악되었다. 성별 평균수명의 차이 때문에 여성 노인이 많다는 사실, 특히 사별한 여성 노인이 많다는 사실은 주지된 바 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자 사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의 경우는 근소한 차이 이긴 하지만 80세 이상의 초고령 연령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65-69세, 70-74세, 75-79세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1인가구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대다수는 무학과 초등학교 학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존 노인층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혼자 살거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혼자 사는 노인1인가구의 경제활동상태(24.6%)는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8.5%)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노인들의 경제활동상태는 대다수가 농업이나 단순소일거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노인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선행연구와 최근 발표된 2005년 인구센서스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의 경제활동은 대부분 농림어업인 것으로 나타났다(은기수 2001; 통계청b 2006). Table 1에 나타나는 비율로는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없다. 가령 혼자 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는 것인지는 관계성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자원을 일정 정도 소유한 노인들이 혼자 사는 경향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Table 1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특성으로는 노인의 생계수단에 대한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녀와 기타 일부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노인1인가구의 경우는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에 비하여 본인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비율이 약 3배에 달한다.

혼자 바깥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에 비하여 노인1인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교적 건강한 신체적 자원을 소유한 노인들이 사별 후 혼자 사는 경향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노인1인가구와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모두 도시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1인가구가 농촌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에 비하여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업사회에서 사라난 현재의 노인세대와 산업사회로의 변화 과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ne-person household of elderly	Elderly living with family
Sex		
male	10.8	10.5
female	89.2	89.5
Age		
65-69	33.2	25.0
70-74	31.2	24.9
75-79	22.1	23.0
≥ 80	13.5	27.1
Educational attainment		
no education	65.5	62.5
elementary school	26.0	28.8
middle school	3.9	4.1
≥ high school	4.6	4.6
Economic activity		
yes	24.6	8.5
no	75.4	91.5
Capable of physical activity by oneself		
yes	95.8	88.3
no	4.2	11.7
Area		
rural	36.2	19.5
urban	63.8	80.5
No. of sons		
0	11.9	3.1
≥ 1	88.1	96.9
N	10493	20808

정에서 자라나 빈번한 이동을 경험한 성인자녀세대를 고려할 때 당연하게 이해되는 현상이다.

노인1인가구와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모두에서 총 출생아들이 1명 이상 있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총 출생아들이 없는 비율은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3.1%)에 비하여 노인1인가구(11.9%)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 아직도 아들에게 부과되는 현실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사별 후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와 두드러지게 대비되는 노인1인가구의 특성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현재의 노인집단은 아직까지 비교적 유사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에서 제시되듯이 사별 후 노인1인가구를 구성하는 노인은 반드시 경제적, 신체적 건강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버림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여러 사회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노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부양과 효의 개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혼 자녀들의 현실적인 욕구에 근거한 선택으로 변화한다면, 경제적 자원과 건강 자원을 확보한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음도 지적할 수 있다.

2.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와 특성

노인인구의 지역별 분포에 대한 기존 정보는 주로 통계청의 보고에 의존하였다.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을 통하여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최장수 마을은 어디인지 등이 언론매체에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어떠한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특히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1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기술분석이나 논의는 거의 진행된 바 없다.

Table 2는 16개 시도별 노인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제시한다. 노인1인가구는 65세 이상 노인 집단 중 자녀가 있으나 사별 후 혼자 사는

경우에 제한하였다. 절대적인 수치로 노인1인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1267명)와 경상북도(1242명)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전남(17.7%), 경북(14.4%)으로 파악된 고령자 통계(2006 통계청)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1인가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노인1인가구가 가장 적게 집계된 지역은 울산광역시(120명)와 대전광역시(158명)로 나타났다. 이 두 지역은 도시의 특성상 젊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인1인가구의 수도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 분포는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의 비율이 대부분 85%를 상회함으로써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94.8%)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여성의 비율과 여성의 평균수명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된 바 있다.

연령별 분포는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1인가구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모든 연령 집단에서 노인1인가구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노인1인가구 중 80세 이상 초고령층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1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인데 반하여,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8.5%로 가장 낮게, 제주도와 강원도의 경우는 각각 25.8%,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1인가구의 학력 구성을 살펴보면 시(市) 단위에서 무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광역시(72.5%)와 광주광역시(60.1%)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15.7%)와 대구광역시(8.8%)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의 노인1인가구 중 무학의 비율이 다른 시에 비하여 높은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는 광역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을 포괄하며 발생한 현상이 아닐까 추정된다. 도(道) 단위에서는 무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제주도(86.5%)와 전라도(전북과 전남이 각각 77.9%와 77.8%로 유사), 고등학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8.4%), 강원

도(3.3%)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를 비교하면 도 단위에서 나타나는 무학의 비율이 시 단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반면 고학력의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경제활동상태는 전반적으로 시 단위의 경제활

동비율이 도 단위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다. 가령 시 단위의 경제활동 비율은 대부분 10-15%에 해당한다. 반면 도 단위에서는 경제활동 비율이 30%를 상회한다. 시 단위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은 울산광역시(16.7%), 가

Table 2. Regional distribution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s of the elderly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un	Ulsan
Sex							
male	13.2	12.0	10.2	12.5	8.7	13.3	6.7
female	86.8	88.0	89.8	87.5	91.3	86.7	93.3
Age							
65-69	36.5	40.5	37.2	36.6	34.4	36.1	34.2
70-74	30.9	32.6	30.1	29.5	33.3	31.0	28.3
75-79	19.7	18.4	21.0	23.7	21.3	20.9	24.2
≥ 80	12.9	8.5	11.7	10.2	11.0	12.0	13.3
Educational attainment							
no education	40.1	47.5	55.8	56.6	60.1	44.9	72.5
elementary school	33.3	38.5	29.1	32.9	29.0	39.9	21.7
middle school	10.9	6.2	6.3	6.1	6.6	10.1	4.2
≥ high school	15.7	7.8	8.8	4.4	4.3	5.1	1.6
Economic activity							
yes	10.1	8.5	9.7	14.2	14.8	8.9	16.7
no	89.9	91.5	90.3	85.8	85.2	91.1	83.3
Capable of physical activity by oneself							
yes	96.7	96.3	95.6	97.0	97.8	98.1	94.2
no	3.3	3.7	4.4	3.0	2.2	1.9	5.8
No. of sons							
0	5.4	9.0	8.3	11.0	12.6	6.2	6.4
≥ 1	94.6	91.0	91.7	89.0	87.4	93.8	93.6
Residence area of children							
same village, town, sub-county	24.1	27.2	19.7	28.5	29.3	21.8	25.4
different village, town, sub-county in the same city and district	29.4	28.7	37.2	30.2	40.9	34.6	42.4
same county	19.8	22.4	23.1	15.1	12.2	17.3	14.4
different city/province	23.7	20.9	19.9	25.4	17.7	24.4	16.9
abroad	3.0	0.8	0.0	0.7	0.0	1.9	0.8
Means of subsistence							
by oneself	26.6	17.9	17.3	19.0	24.0	24.7	30.0
partial support from children and other sources	48.9	49.8	51.1	55.9	48.6	42.4	47.5
total support from children and other sources	24.5	32.3	31.6	25.1	27.3	32.9	22.5
N	1039	598	382	295	183	158	120

Table 2. Countined

	Gyong gi	Kang won	Chung buk	Chung nam	Jeon buk	Jeon nam	Gyung buk	Gyung nam	Jeju
Sex									
male	15.2	12.4	13.7	12.3	9.2	9.8	11.6	9.6	5.2
female	84.8	87.6	86.3	87.7	90.8	90.2	88.4	90.4	94.8
Age									
65-69	35.0	31.7	28.8	32.1	30.0	33.3	31.0	33.1	22.7
70-74	30.9	28.4	30.2	30.1	33.0	31.0	32.6	31.1	26.2
75-79	20.6	22.0	28.5	22.7	23.1	23.4	21.6	23.1	25.3
≥ 80	13.5	17.9	12.5	15.1	13.9	12.3	14.8	12.7	25.8
Educational attainment									
no education	50.7	72.1	71.8	68.9	77.8	77.9	74.3	74.1	86.5
elementary school	34.1	21.3	23.8	27.6	18.7	20.1	23.3	22.4	8.7
middle school	6.8	3.3	2.1	1.2	1.4	0.8	1.2	1.9	3.1
≥ high school	8.4	3.3	2.3	2.3	2.1	1.2	1.2	1.6	1.7
Economic activity									
yes	13.1	21.5	31.4	33.9	28.0	41.6	35.0	33.9	33.2
no	86.9	78.5	68.6	66.1	72.0	58.4	65.0	66.1	66.8
Capable of physical activity by oneself									
yes	95.8	96.2	97.9	94.9	96.9	96.0	95.3	95.4	93.5
no	4.2	3.8	2.1	5.1	3.1	4.0	4.7	4.6	6.5
No. of sons									
0	6.0	9.8	5.5	3.2	7.0	4.2	5.9	5.4	9.9
≥ 1	94.0	90.2	94.5	96.8	93.0	95.8	94.1	94.6	90.1
Residence area of children									
same village, town, sub-county	25.2	26.1	16.9	22.8	23.1	19.4	19.0	24.0	44.1
different village, town, sub-county in the same city and district	19.1	23.6	19.3	16.0	20.4	18.2	19.1	18.8	22.0
same county	10.4	12.1	16.9	11.6	14.4	14.4	12.7	15.4	18.1
different city/province	43.6	37.8	46.6	49.3	42.0	47.9	49.0	41.4	15.4
abroad	1.7	0.4	0.3	0.3	0.1	0.2	0.1	0.4	0.4
Means of subsistence									
by oneself	21.4	28.2	25.9	28.8	23.8	32.8	29.2	29.4	39.3
partial support from children and other	49.4	44.4	46.6	44.8	44.1	44.8	42.9	46.9	38.4
total support from children and other	29.2	27.4	27.5	26.4	32.1	22.3	27.9	23.7	22.3
N	977	451	386	652	866	1267	1242	1105	229

장 낮게 나타나는 곳은 부산광역시(8.5%)이다. 도 단위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41.6%),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13.1%)이다. 현재 노인층의 경제활동이 주로 농업이나 단순소일거리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도 단위 지역의 경제활동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노인1인가구의 건강상태는 지역에 관계없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95% 이상이 혼자 바깥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건강자원이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98.1%)와 충청북도(97.9%)이다.

총 출생아들 수가 0명인 비율은 광주광역시(12.6%), 인천광역시(11.0%), 제주도(9.9%), 강원도(9.8%)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거주 장소는 시 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같은 읍면동'이나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읍면동', 즉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 단위의 경우는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른 시도에 사는 비율이 시 지역보다 도 지역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특히 자녀가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청남도(49.3%)와 경상북도(49.0%)이다.

흥미로운 점은 제주도 지역은 노인1인가구의 자녀가 다른 시도에 사는 비율이 전국의 16개 시도를 통틀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아서 자녀들이 다른 시도에 사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 생계수단은 시도에 관계없이 약 절반 정도의 비율이 '자녀와 기타 일부 지원'에 해당한다. 전적으로 본인이 생계를 담당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시 단위보다 도 단위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도 단위 지역에서 사는 노인1인가구는 주로 농업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이 생계를 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30.0%)와 제주도(39.3%), '자녀와 기타 전부 지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광역시(32.9%)와 전라북도(32.1%)로 나타

났다.

전반적인 특성을 요약하면, 주지된 바와 같이 노인1인가구의 성별 구성은 여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1인가구의 비율은 낮아지지만, 시 단위에서는 울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도 단위에서는 제주도와 강원도가 80세 이상의 노인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1인가구의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시 단위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이 15.7%로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다. 이는 고등 교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울산광역시에 비하여 약 10배 가량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도 단위의 경우도 고등 교육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가장 낮은 전라남도, 경상북도에 비하여 약 7배 정도 높다.

전반적으로 도 단위에 거주하는 노인1인가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시 단위의 노인1인가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 단위의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혼자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부는 시도에 걸쳐 90%를 웃도는 수준이다. 즉 일정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노인이 사별 후 혼자 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시 단위의 경우에는 노인1인가구의 자녀 거주 장소가 비교적 근거리에 인접해 있음이 나타났다. 즉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자녀와 따로 살더라도 근거리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가 다른 시도에 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로 나타났다. 위의 지역들은 인근 시도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경우가 많다. 가령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충청남도의 경우는 대전광역시와 같은 인근 지역으로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동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자녀가 다른 시도에 사는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와 마찬가지로 생계수단 역시 시 단위보다 도 단위에서 본인이 전적으로 생계

를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와 기타 전부 지원'한다는 비율은 시도에 걸쳐 비교적 유사하다.

위와 같이 노인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경제, 문화, 복지 등의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지역의 인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하여 노인인구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또한 기존에 취약계층으로 생각되는 노인1인가구의 특성과 다양성을 면밀히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별 분포와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에 따른 노인1인가구 특성의 편차도 밝힐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시도간의 노인1인가구의 특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지역별로 노인에 대한 정책 수요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도 논의할 수 있다.

3. 사별 후 노인거주형태의 결정요인과 연령별 비교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들은 사별 후 노인의 거주형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특성을 가진 노인들이 사별 후 혼자 살 확률이 높은가?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사별 후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를 준거 집단으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경제활동상태, 혼자 바깥활동 할 수 있는 여부, 거주지역, 그리고 총 출생아들 수를 사용하였다.

Table 3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별 후 혼자 살 확률이 2배 가량 높다. 연령의 경우는 65-69세에 비교하여 75-79세,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사별 후 혼자 살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자 사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던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 결과와 유사하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노인에 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학력을 지닌 노인이 사

별 후 혼자 살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초등학교 학력에만 해당한다. 고학력 노인들은 저학력 노인들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높은 경제자원과 건강자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고학력 노인들이 사별 후 혼자 살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닌지 유추할 수 있다.

경제활동 상태와 혼자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여부는 모두 사별 후 혼자 살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필요(need)와 자원 가용성(availability of resources) 가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원과 건강자원은 노인의 거주 형태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혼자 살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의 지리적인 근접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아들이 1명 이상

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e-person household of elderly vs. elderly with family)

	Odds Ratio
Sex (ref: male)	
female	2.401***
Age (ref: 65-69)	
70-74	1.030
75-79	0.805***
≥ 80	0.444***
Education (ref: ≥high school)	
no education	1.049
elementary school	0.863*
middle school	0.943
Economic activity (ref: no)	
yes	2.467***
Capable of physical activity by oneself (ref: no)	
yes	2.244***
Area (ref: rural)	
urban	0.466***
No. of sons (ref: 0)	
≥ 1	0.347***
Likelihood Ratio	3291.2***

인 경우가 사별 후 혼자 살 확률이 절반 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들이 부모 부양을 책임진다는 전통적 가치관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연령에 따라 거주 형태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Table 4). 전반적인 결과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은 통합 모델과 유사하다. 가령 모든 연령대에 걸쳐 여성이 남성보다 사별 후 혼자 살 확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경제활동 상태와 혼자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역시 혼자 사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확률은 높아진다. 가령 65세부터 79세 사이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혼자 살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2배를 웃도는 정도였다. 그러나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4배 가량으로 나타난다. 이는 80세 이상인 노인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사실의 선별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거주 지역과 총 출생아들 수의 영향력도 전

연령대에 걸쳐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연령에 따라 약간 다른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교육수준이다. 모든 연령대에 걸쳐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80세 이상의 경우는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령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노인에 비하여 다른 학력 수준을 지닌 노인들은 혼자 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8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선별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연구는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들의 세대구성별 가구형태를 비교함으로써, 교육수준과 경제적 자원이 3세대 가구에 비해 1세대 가구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정석 2005). 이 연구는 노인단독가구와 노인 부부가구를 포함한 1세대 가구가 기존의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반드시 열악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이 논문의 논점과 부합된다. 즉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약화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

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age (one-person household of elderly vs. elderly with family)

	Odds Ratio			
	65-69	70-74	75-79	≥ 80
Sex (ref: male)				
female	2.296***	2.164***	2.499***	2.675***
Education (ref: ≥high school)				
no education	1.140	1.112	1.093	0.602**
elementary school	0.998	0.828	0.865	0.503***
middle school	1.047	0.804	1.403	0.456**
Economic activity (ref: no)				
yes	2.111***	2.596***	2.663***	4.156***
Capable of physical activity by oneself (ref: no)				
yes	1.715***	1.883***	2.662***	2.367***
Area (ref: rural)				
	0.461***	0.504***	0.449***	0.453***
No. of sons (ref: 0)				
≥ 1	0.371***	0.342***	0.373***	0.302***
Likelihood Ratio	647.8***	580.4***	590.5***	632.7***

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1인가구가 반드시 병약하고 빈곤하고 소외된 집단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로 구성된 노인1인가구는 교육수준과 경제자원, 건강자원을 소유한 선별적인 집단에 해당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시사한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노인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 부양 가치관 약화 등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기존 노인집단은 동질적인 특성을 지녔던 데 반하여 노인의 교육수준과 경제자원 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변화를 인지하여, 노인1인가구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년 센서스의 2% 표본 자료를 이용하였다. 노인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은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거주형태 결정요인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기술 분석 결과, 사별 후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에 대비되는 노인1인가구의 특성은 경제활동 상태, 생계수단, 건강 상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 참여, 건강 상태, 본인이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비율이 노인1인가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역시 유사하다. 경제활동 상태와 건강 상태는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1인가구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노인1인가구 중 80세 이상인 경우는 선별적인 특성을 지남도 밝혀졌다.

위의 결과는 노인1인가구가 기존의 논의처럼 반드시 빈곤하고 병약한 취약집단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즉 노인1인가구 중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건강하고 경제적 자원을 지닌 노인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가족가치와 부양규범, 자식의 의미가 변화하였음 역시 반영한다.

노인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와 특성을 살펴보면 시와 도 단위의 차별성이 관찰된다. 경제활동 상태와 생계수단의 독립성은 시 단위에 비하여

도 단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책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의 경우는 성별과 연령 분포, 자녀의 거주지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보였다.

이 연구는 노인1인가구에 주목한 점, 센서스와 같은 대규모 조사 자료를 사용한 점, 객관적인 지표에 의존하여 노인1인가구의 특성과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구별된다. 기술 분석에 머무는 수준이라 할 지라도 노인1인가구의 특성과 지역별 분포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와 정책 입안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시한 의의를 지닌다. 즉 노인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과 지역별 특성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원과 정책 마련이 보다 다각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노인1인가구의 다양성에 주목함으로써 사회적, 학문적 관심을 환기한 의의가 있다.

노인1인가구의 수적인 증가와 구성의 다양성이 더욱 심화될 것을 고려할 때 노인1인가구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가령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노인1인가구와 자녀와 근접하여 도시에서 살고 있는 노인1인가구는 정책적 수요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선별적인 특성을 드러냈던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1인가구와 60-70대의 노인1인가구는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지만 앞으로는 이혼, 미혼, 무자녀로 인한 노인1인가구가 많아짐을 고려할 때 이들의 특성과 욕구 역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위와 같은 주제들은 추후에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두섭(2001) 한국 사회구조의 변화와 노년기의 가족관계. 김두섭 편저.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3-72.
- 김두섭·박경숙·이세용(2001)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 유형과 결정요인. 김두섭 편저.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113-149.

- 김정석(2002) 가족과 가구.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저. 한국의 인구. 서울: 통계청. 247-281.
- 박경숙(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의암출판.
- 박충선·남정림(1996) 노인단독가구의 생존 전략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2), 81-101.
- 박현정·최혜경(2001) 한국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의 노후 부양가치관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63-75.
- 안경숙(2005) 노인부부가구·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1), 1-19.
- 원영희(1995) 동·별거 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유광수·박현선(2003)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3(4), 163-179.
- 은기수(2001) 한국의 고령화와 노인가구. 김두섭 편저.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73-111.
- 이영자·김태현(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3), 79-93.
- 조명희·조영희·심영·김대연(1997) 노인 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지역 노인단독 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사회적 관계 및 가사노동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73-190.
- 조선일보(2006) 맞벌이 300만쌍 시대 신씨족사회: “아이 봐줄 사람 걸으러” 가족들, 한동네 뭉친다 (2006.11.14) www.kinds.or.kr.
- 조성남(2004) 에이지봄 시대: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최현수·류연규(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통계청a(2006) 2006 고령자 통계. 대전:통계청.
- 통계청b(2006)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www.nso.go.kr
- 한경혜(1996) 농촌단독가구 노인의 자녀관계. 한국노년학 16(2), 21-38.
- 한경혜·윤순덕(2001) 자녀와의 동·별거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2), 163-178.
- Bian F, John RL, and Yanjie B(1998)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Urban China: Proximity, Contact, and Help to Parents. Demography 35(1), 115-124.
- Cameron L(2000) The Residency Decision of elderly Indonesians: A Nested Logit Analysis. Demography 37(1), 17-27.
- DaVanzo J and Angelique C(1994)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Malaysians: Who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Demography 31(1), 95-113.
- Holden KC(1988) Poverty and Living Arrangement among Older Women: Are Changes in Economic Well-Being Underestimated? Journal of Gerontology 43(1), S22-S27.
- Logan John R and Fuqin Bian(1999) Family Values and Coresidence with Married Children in Urban China. Social Forces 77(4), 1253-1282.